

주간 통일정세

2016-3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24	北 김정은, 물고기 사료공장 시찰...공장 성장잠재력 대단(연합뉴스)
		北 노동신문, '전승절' 띄우기...역사적 사변(연합뉴스)
	7.25	국제무대 데뷔 北 리용호, 왜 베이징-쿤밍 거쳐 라오스 갔나(연합뉴스)
		北, 평양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완공(연합뉴스) 北 매체, 정전기념일 이틀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7.26	김정일 넷째 부인 김옥 숙청...수용소로 보내져(연합뉴스)
		北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수장에 남파공작원 출신 운동철(연합뉴스)
		北 리용호 "추가 핵실험,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연합뉴스)
		北, 정전협정 중앙보고대회...전민항전 준비 갖춰야(연합뉴스) 北, 미제 패배 인정한 정전협정...역지 사상 공세(연합뉴스)
	7.27	北 김정은, 연일 '민생행보'...건축자재공장 시찰(연합뉴스)
		北 김정은, 스위스 유학 시절 이웃과 눈도 안 맞춰(연합뉴스)
		北 교과서 "미군, 무릎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 날조해 기술(연합뉴스) 北 반제민전, 사드배치 반대투쟁 노골적 선동(연합뉴스)
	7.28	北 김정은, 정전기념일 맞아 참전 병사들에 선물(연합뉴스)
		北 '대남공작기구 수장' 정찰총국장 7개월째 '오리무중'(연합뉴스)
		北 리용호, "ARF 의장성명 어땠나" 문자 묵묵부답(연합뉴스) 대남총책 北 김영철, 정전협정 대회 불참...도발준비 가능성(연합뉴스)
7.29	北 외교관들, 불법행위 폭로 주제국 언론사 찾아가 협박(연합뉴스)	
	北 매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버릇없는 수작" 비난(연합뉴스)	
경제	7.26	北 고려항공, 평양·중지남 정기노선 편성한 듯(연합뉴스)
	7.27	中 단둥·北 개성 고속도로 착공식 불발...북중경협에 영향 줄 듯(연합뉴스)
	7.28	北·中 왕복 제3국 선박의 주요 운반 품목은 광물(연합뉴스)
	7.29	北, 대북제재 무용론 과시위해 전시에비물자 탕진(연합뉴스)
북중교역 거점 中 단둥, 대북제재에 제조업 직격탄(연합뉴스)		
사회 문화	7.25	北 함경북도 보위부 건물서 잇달아 화재(연합뉴스)
		北 통신, 평안도 폭우 피해 속출...10명 사망(연합뉴스)
	7.27	北, 일부 근로자 이탈로 려명거리 건설 차질(연합뉴스)

		北, 간부들 위해 중국서 곰 쓸개 활발히 수입(연합뉴스) 북한에 채권추심 전문 현역군인 '색안경부대' 등장(연합뉴스)
	7.28	[단독]북중접경 中창바이현서 북한군 탈영병들 총기강도...일부 체포(연합뉴스)
	7.29	북한 장마당에도 쇠고기 등장...늪은 소 도축한 듯(연합뉴스) 북한군 보위총국 단속에도 배품은 군인 탈영 못 막아(연합뉴스)
외교 국방	7.23	北, 공기부양정·잠수함 훈련 활발...군용유 어디서 났나?(연합뉴스) 北, 3천급 SLBM 잠수함 기지 건설 중...은폐용 덮개도 갖춰(연합뉴스)
	7.24	中왕이, 北 리용호와 회동 시사...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연합뉴스) '친밀' 연출했나...북중 외교수장, 같은 비행기에 같은 호텔 묵어(연합뉴스) 北노동자 고용 금지해야...日, 北 핵·미사일 자금차단 주력(연합뉴스) 또 호지부지되는 안보리 대북 성명...한반도 사드 영향?(연합뉴스)
	7.25	북중 외교수장 라오스서 2년 만에 회담...쌍무관계 발전 토의(연합뉴스) 북중 외교장관 회담서 北 리용호 "중국과 소통 강화"(연합뉴스) 동아시아정상회의의 대북 규탄 성명 난항...中·라오스 반대(연합뉴스) 北 리용호, 아웅산 수치와 면담...유엔서 지지·방북 요청(연합뉴스) 유엔사, 24일 새벽 확정기로 北에 '인공어초' 설치 통보(연합뉴스)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페인, 북핵공조 협력 재확인(연합뉴스)
	7.26	<美민주 전대> 北 가장 억압적 정권인권유린...동맹중사보호무역 정강채택(연합뉴스) 케리 美국무, 北 도발에 "실질적 결과 따를 것" 경고(연합뉴스) 美 사이버공격 배후세력 제재...러시아·중국·북한 겨냥(연합뉴스) 北 리용호, 라오스에 ARF 계기 양자방문 요청했다 거절당해(연합뉴스) 北, 영공 요새화 위한 '북한식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한 듯(연합뉴스)
	7.27	美, 北 5차 핵실험 위협에 "동북아안정 혼드는 언행 삼가야"(연합뉴스) ARF 의장성명 발표...北핵실험·로켓발사 우려(연합뉴스) [단독]김정은, 5년간 탄도미사일 31발 발사...1천100억 원 이상 날려(연합뉴스)
	7.28	北 "美 김정은 제재는 범죄행위, 선전포고로 간주"(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 폐기(연합뉴스) 英, 고려항공 이용 시 주의...北 여행주의보 갱신(연합뉴스) 北, 평양 인근에 새 군사훈련시설 조성(연합뉴스)
	7.29	美국무부 관리, 차기 행정부서도 쫓겨는 북한과 대화 어려울 것(연합뉴스) 북한 방문 초청받은 아웅산 수치가 묵묵부답하는 까닭(연합뉴스) 北, ARF 의장성명에 불만표시...수정 시도했으나 실패(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7. 24.

■ 北 김정은, 물고기 사료공장 시찰...공장 성장잠재력 대단(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어분사료공장(물고기 사료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분사료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 놓은 결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다”고 말한 뒤 공장 내 사료가공장, 물고기 선별장, 물고기냉동실, 사료보관창고 등을 두루 돌아봤다고 전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수행함.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함.

2016. 7. 27.

■ 北 김정은, 연일 '민생행보'...건축자재공장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건축자재 공장인 '천리마건축종합공장'을 시찰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감.
- 김 위원장은 공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현대적인 건축생산공정들을 더 갖추어놓으면 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청춘공장으로 전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며 “반드시 이곳을 주체화,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건축생산기지로 꾸려나가자”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정은의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미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스위스 유학 시절 이웃과 눈도 안 맞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이웃들과 눈도 맞추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RFA는 1996~1998년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김 위원장이 형 정철 이모인 고용숙의 가족과 스위스의 수도 베른 교외 리베펠트의 키르히슈트라세 10번지에 있는 3층 연립주택에 머물렀다는 스위스 공영방송 SBC의 최근 보도를 소개함.

- 방송은 이 주택 이웃의 말을 통해 김정은이 당시 이곳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그가 집 앞 공터에서 ‘끊임없이’(constantly) 농구를 하곤 했다고 보도했다고 RFA는 전함.
- 빅토르 슈미트로 알려진 이 이웃은 “아이들은 북한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짙게 선팅된 검은색 폴크스바겐 미니버스를 주로 이용했다”며 “아이들이 이웃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준 적이 없어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함.

2016. 7. 28.

■ **北 김정은, 정전기념일 맞아 참전 병사들에 선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기념일에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28일 보도함.
- 이들 매체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노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전함.
- 다만,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7. 25.

■ **국제무대 데뷔 北리용호, 왜 베이징-쿤밍 거쳐 라오스 갔나(연합뉴스)**

-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비행기를 한 차례 갈아타며 중국 베이징(北京)과 쿤밍(昆明)을 경유하는 경로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라오스에 24일 도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방콕 등을 경유하는 다른 노선도 있지만 리 외무상이 쿤밍을 경유지로 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옴.
- 우선 리 외무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같은 비행편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음. 두 사람은 베이징-쿤밍-비엔티안 노선에 모두 동승함.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같은 비행기를 택하면서 의도적으로 양국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려는, 계산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옴. 리 외무상이 출국할 때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배웅했던 점과 두 사람이 비엔티안 시내 같은 호텔에 묵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 아울러 일각에선 쿤밍이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로 가는 길목이자 북한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거점인 점을 들어 리용호가 의도적으로 이곳을 경유지로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임.

- 아울러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주재원들을 만나 활동을 점검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임. 그는 귀국 시에는 라오스에 올 때의 역순인 쿤밍-베이징-평양 노선을 택할 것으로 알려짐.

2016. 7. 26.

■ **김정일 넷째 부인 김옥 숙청...수용소로 보내져(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 김옥(52)이 숙청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김옥의 숙청 가능성을 보도함
- 최근 평양을 다녀온 중국의 한 사업가는 RFA에 “김옥은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말을 노동당 간부에게서 들었다”고 전함. 이 사업가는 “김옥 혼자가 아니라 그녀의 친정 식구 모두 함께 관리소에 수용됐다고 들었다”면서 “김옥 남동생(김균)의 인허무인격인 행동과 오만한 태도가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RFA에 “북한체제의 속성상 김정은 집권 후 김옥은 어차피 제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며 “김일성 사망 후 김성애(김일성의 둘째 부인)가 조용히 사라진 것만 봐도 쉽게 짐작되는 일”이라고 말함. 이 소식통은 “김옥이 제거되지 않으면 김정은 생모인 고영희의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김옥의 아버지 김효 노동당 재정경리부 부부장도 2014년 3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에서 제외된 바 있음.

■ **北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수장에 남파공직원 출신 윤동철(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국장에 남파 공직원 출신인 윤동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임명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국장에 윤동철이 임명됐다”며 “윤동철은 과거 남파 공직원 훈련을 받고 한 차례 남쪽으로 내려와 간첩 임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다”고 밝힘.
-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는 연락부, 문화연락부, 대남연락부, 대외연락부, 225국, 문화교류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옴. 문화교류국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이며, 통일전선부장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임.

■ **北 리용호 “추가 핵실험,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조선반도 비핵화는 하늘로 날아갔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제5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함.
- 리 외무상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온 것인데 조선반도 비핵화 자체가 미국에 의해 이제는 그저 하늘로 날아간 것이나 같게 됐다”고 주장함.
- 리 외무상이 지난 24일 라오스 도착 이후 북핵 등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는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우리가 추가핵실험을 하는가 미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주장함.
- 리 외무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대회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모든 무장 장비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면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6. 7. 28.

■ 北 ‘대남공작기구 수장’ 정찰총국장 7개월째 ‘오리무중’(연합뉴스)

- 올해 초 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대남 공작기구인 정찰총국장 수장이 7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한창순 전 북한군 7군단장(상장)이 정찰총국장에 발탁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찰총국장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일각에서 북한 당국이 대남공작 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이어서 정찰총국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北 리용호, “ARF 의장성명 어떻게 봤느냐” 문자 묵묵부답(연합뉴스)

- 라오스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8일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우려를 밝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의장성명에 대해 침묵을 지킴.
-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현지시간) 숙소인 비엔티안의 D호텔 1층에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냄.
- 리 외무상은 “어제 나온 ARF 의장성명 어떻게 봤느냐”, “로켓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등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감. 전날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가볍게 미소를 짓던 것에 비해 다소 굳은 표정이었음.

- 이는 ARF 의장국인 라오스가 전날 공개한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대남총책 北김영철, 정전협정 대회 불참…도발준비 가능성(연합뉴스)

-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7일 자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 자리 잡은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김영철은 포함돼 있지 않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협정 폐기 선언을 주도했던 김영철이 정전협정 보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최근 정황으로 미뤄볼 때 김영철이 서열에서 밀렸다고보다는 대남공작을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2016. 7. 29.

■ 北 외교관들, 불법행위 폭로 주재국 언론사 찾아가 협박(연합뉴스)

-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한 현지 언론사들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현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RFA에 “지난 6월 15일 아프리카 내 북한병원의 불법실태를 폭로한 민주콩고의 일간지 룩세르비퇴르에 북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몰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힘.
- RFA는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들마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각종 대북제재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도, 북한은 애꿎은 언론사에 분풀이하면서 체제선전에만 이용하려 애쓰는 모양새”라고 비판함.

다. 공식행사

2016. 7. 26.

■ 北, 정전협정 중앙보고대회…전민항전 준비 갖춰야(연합뉴스)

-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이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유사시 조국수호의 결사전에 나설 수 있게 전민항전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6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우리의 우익 정당에 해당) 위원장, 내각, 근로 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전쟁 노병들과 공로자들이 참가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7. 25.

■ 北, 평양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완공(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에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지어 지난 24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장, 북한 주재 국제기구 대표와 대사관 직원 등이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밝힘.
-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21일(보도일 기준) 완공을 앞둔 이 두 곳을 시찰한 바 있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7. 24.

■ 北노동신문, '전승절' 띄우기...역사적 사변(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27 전승절'을 앞둔 24일 7·27이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 신문은 이날 '20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영웅조선의 7·27'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전승은 인류전쟁사와 국제정치 흐름에 미증유의 흔적을 남기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96년부터 국가 명절인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음.

2016. 7. 25.

■ 北 매체, 정전기념일 이틀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27일) 63주년을 이틀 앞두고 매체들을 동원해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준공식을 엄숙히 거행한 때로부터 3년이 되었다"며 "열사묘가 준공된 후 지난 3년간 84만 6천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며 1996년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음.

2016. 7. 26.

■ 北, 미제 패배 인정한 정전협정...역지 사상 공세(연합뉴스)

-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미제(미국)가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정전을 먼저 제기했다'는 식의 역지 사상 공세를 펼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조선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 비긴 미국의 패배상'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 당시 조선인민군의 재진격에 의해 격퇴당하기 시작한 미제는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정전문제를 먼저 제기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며, 1996년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음.

2016. 7. 27.

■ 北교과서 "미군, 무릎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 날조해 기술(연합뉴스)

- 27일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임. 한국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 날을 정전협정 기념일로 부르지만 북한은 '전승절(戰勝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있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 교과서들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패배를 자인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서 연구위원은 이런 북한 교과서들에 대해 "전승절은 전쟁에서 이긴 날이라는 뜻인데 전쟁 당시의 실상을 보면 도대체 뭘 이겼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매년 이날이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동방에 새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를 만천하에 시위한 혁명적 경사의 날'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함.
- 서 연구위원은 "6.25 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이어 국군과 유엔군이

38선 돌파로 북진을 거듭할 때 국경까지 도망쳤다가 휴전으로 목숨을 부지한 김일성이 1973년 휴전협정 20주년을 맞아 패전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호전성을 주입하기 위해 정전협정기념일을 전승기념일로 둔갑시켰다”고 설명함.

■ 北 반제민전, 사드배치 반대투쟁 노골적 선동(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혁명부대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투쟁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나섰다.
-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싸드(사드)배치를 결사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열기로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끓어번지고 있다”며 “전체 국민이 도처에서 싸드결사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는 ‘격문’을 발표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함.
- 북한은 반제민전이 우리나라에서 ‘구국전선’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활동하는 중북 지하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 혁명전위대임

2016. 7. 29.

■ 北매체,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버릇없는 수작” 비난(연합뉴스)

- 북한 선전 매체가 지난 27일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맹비난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남조선 괴뢰들이 지난 27일 그 무슨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대한 시사회 놀음을 벌리었다”며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작전이니, 죽음을 불사한 이야기니 뭐니 하는 화려한(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는) 수작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함.
- 매체는 그러면서 “미제의 전쟁책동을 미화분식하고 당면하게는 싸드(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합리화하여 그를 반대하는 민심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리앉히려는데 목적을 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는 억지를 부림.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7. 29.

■ **北, 대북제재 무용론 과시위해 전시예비물자 탕진(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전시예비물자마저 탕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은 올해 4월 전시예비물자를 보관하는 ‘4호 창고’의 휘발유와 디젤유를 농업부문에 먼저 돌려쓰라는 지시를 내려 현재 사군들에 있는 전시예비물자 휘발유와 디젤유는 바닥이 난 상태”라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최근 각 도 소재지들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도 인민군 군수동원총국 산하 ‘50호사업소’에 보관됐던 전시예비물자인 시멘트와 철강재들로 건설되고 있다”며 “50호사업소에 보관했던 휘발유와 디젤유도 상당량 소비됐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끄떡도 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예비물자까지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 간부들은 잘 알고 있다”며 “전시예비물자까지 모조리 축낸다면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간부들도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7. 26.

■ **北 고려항공, 평양-중지난 정기노선 편성한 듯(연합뉴스)**

-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을 왕복하는 주 2회 정기노선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VOA는 “지난달까지 사흘에 한 번 지난 행(行) 전세기를 띄웠던 북한 고려항공이 최근 주 2회 정기노선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지난 5월 23일 개통된 칭다오(靑島)와 평양 간 전세기 노선은 주 2회 정기노선으로 신설될 것이라는 칭다오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전세기 운항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음.

2016. 7. 27.

■ **중단동·北개성 고속도로 착공식 불발...북중경협에 영향 줄 듯(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정부에 제안한 단둥(丹東)과 개성 간 고속도로 착공식 개최가 불발됨.
- 27일 단둥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달 랴오닝성 측에 “6·25 전쟁 종전일인 7월 27일 단둥~개성 고속도로 착공식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실현되지 않음.
-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단둥~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양국 지도부 간의 합의사안으로 전해져 언젠가는 실시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6. 7. 28.

■ **北·中 왕복 제3국 선박의 주요 운반 품목은 광물(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을 왕복하는 제3국 선박 대부분이 광물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VOA는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북한 남포항에서 2회 이상 포착된 제3국 선박은 모두 19척이었다고 밝힘.
-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석탄, 철광석, 금 등의 북한 광물 수입을 막았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함.

2016. 7. 29.

■ **북중교역 거점 中 단둥, 대북제재에 제조업 직격탄(연합뉴스)**

-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단둥(丹東)지역의 제조업 부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관영 인민망(人民網)은 단둥시정부 자료를 인용, 단둥지역의 올 상반기 지역총생산(GRDP)이 418억9천만위안(약 7조718억7천만 원)으로 랴오닝(遼寧)성 14개 행정구역 중 10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보도함.
- 올 상반기 단둥의 관광산업 총수입은 198억8천만위안(약 3조3천561억4천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중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13.9%, 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2016. 7. 29.

■ 북한 장마당에도 쇠고기 등장…늪은 소 도축한 듯(연합뉴스)

- 소의 도살을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에서 최근 쇠고기가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거주민 한 주민은 “요즘에는 장마당(북한의 사경제)에서 쇠고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우리(북한산) 쇠고기는 농촌에서 부림소(짐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기 위해 기르는 소) 역할을 할 수 없는 늪은 소를 잡은 것이라 중국 쇠고기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이와 관련, 양강도 혜산의 소식통도 “중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밀수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고, 우리(북한산) 쇠고기는 부림소 역할을 할 수 없는 늪은 소를 농촌기관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살해 장마당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7. 25.

■ 北 함경북도 보위부 건물서 잇달아 화재(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 건물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월에 이어 지난 5월 청진시 청암구역 도보위부 본부청사 건물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이번에는 청사 2층의 방 하나가 완전히 불탔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이 소식통은 “화재가 허필이면 노동당 7차 대회가 끝난 뒤 도 보위부 본부청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처리 추이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RFA에 “가장 안전해야 할 보위부 건물에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보위부 건물의 잦은 화재가 현재 북한 권력기관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함.

■ 北 통신, 평안도 폭우 피해 속출...10명 사망(연합뉴스)

- 지난 22~24일 평안남북도를 중심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지난 20일부터 아열대의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 무더위지기 시작했다”며 “평안남북도 의주와 구성, 수풍, 천마, 동창, 박천, 북창, 개천 등지에 2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힘.
- 북한에서는 지난해 8월 황해남도과 함경남북도, 나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118명이 목숨을 잃고, 1만4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음.

2016. 7. 27.

■ 北, 일부 근로자 이탈로 려명거리 건설 차질(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월 착공된 평양 ‘려명거리’ 건설 사업이 일부 근로자의 이탈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건설 사업 가운데) 함경북도 도 인민위원회가 맡은 아파트 건설은 현재 현장노동자가 없어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도 인민위원회가 현장노동자들의 급식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는 데다 숙소환경마저 열악해 한두 명의 이탈자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철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함.
- 소식통들은 주민들이 려명거리 건설자금 모금이나 노력동원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RFA는 전함.

■ 北, 간부들 위해 중국서 곰 쓸개 활발히 수입(연합뉴스)

- 북한이 간부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곰 쓸개를 활발히 수입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북중 국경 지역 사정에 밝은 탈북자 A 씨는 “중국산 곰 쓸개와 사향이 주로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중국 헤이룽장성의 쉰이퉁허라는 도시에서 거래돼 북한으로 들어간다”며 “대북제재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중국 세관 당국의 검사검열은 있으나 마나”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B 씨는 RFA에 “산림훼손 등으로 북한에서 곰들이 점차 사라지자 상당량의 곰 쓸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며 “러시아에 파견됐던 해외 노동자들이 귀국 하면서 곰 쓸개를 가지고 들어와 당 간부들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 북한에 채권추심 전문 현역군인 ‘색안경부대’ 등장(연합뉴스)

- 북한에 돈주(신흥 자본가)가 떼인 돈을 폭력을 행사해 대신 받아낸 뒤 수수료를 챙기는 현역 군인인 ‘색안경 부대’가 등장했다고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가 27일 보도함.
- 이 매체의 북한 내부 통신원은 “일부 돈주들은 (끼준 돈을 떼이면) 주먹이 드센 사람들을 내세워 강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낸다”며 “그런데 요즘 들어 색안경(선글라스)을 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돈을 받아내고 있다”고 말함.
- 그동안 경비대 군인들은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 밀수꾼과 결탁해 밀수품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챙김.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북 중간 밀수가 봉쇄되면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의 돈벌이 수단도 끊어진 것으로 전해짐.
- 이들이 대신 돈주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는 범죄에 나섰다는 게 통신원의 설명임. 이들은 돈을 받아주는 대가로 원금의 30%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2016. 7. 28.

■ [단독]북중접경 中창바이현서 북한군 탈영병들 총기강도…일부 체포(연합뉴스)

- 북한군 무장 탈영병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수 일 쯤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총격전 끝에 일부가 중국 측에 체포됨.
- 28일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주택가에서 북한 출신 총기강도 5명이 중국군 변경부대 병력, 공안(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2명이 검거됨.
- 이들 강도범에 대한 검거작전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수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경찰관 2명이 크게 다쳐 지린성 성도인 창춘(長春)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됨. 중국군과 공안측은 달이난 나머지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야간 통행 자제를 당부함.

2016. 7. 29.

■ 북한군 보위총국 단속에도 배굴은 군인 탈영 못 막아(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인민군 보위총국을 군부대에 파견해 대대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지만, 군인들의 탈영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9일 보도함.

- 양강도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군 보위총국에서 (군부대들에 대한) 검열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생활고에 지친 군인들의 탈영은 막을 수 없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 “평상시 배를 굶던 군인들이 명절로 불리는 정전협정일(7·27)을 맞아 배불리 먹을 거란 기대를 했지만, 식탁에 떡 몇 개와 염장무만 오르자 불만을 품고 탈영하게 된 것”이라며 “군 보위총국에서도 군대 기강이 너무 해이한 상황에서 국내만 벗어나지 않으면 군인 탈영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7월 한 달 동안 알려진 군인 탈영 사건만 3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군인 사상 무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7. 26.

- <美민주 전대> 北 가장 억압적 정권-인권유린...동맹중사-보호무역 정강채택(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기초가 될 정강을 공식으로 채택함.
 - 민주당의 정강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 대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공약과 연결시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전방위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특히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함.
- 케리 美국무, 北 도발에 “실질적 결과 따를 것” 경고(연합뉴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시험에 “실질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함.
 - 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러한 행동들에 ‘실질적인 결과’(real consequences)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함.

- 캐리 장관은 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법 준수를 촉구함.

■ **美 사이버공격 배후세력 제재…러시아·중국·북한 겨냥(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자국의 교통 시스템이나 전력망 등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배후세력에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밝힘.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함.
- 이 행정명령은 중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협력 및 대응방안을 담은 것으로 사이버공격자로 지목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됨.

2016. 7. 27.

■ **美, 北 5차 핵실험 위협에 “동북아안정 혼드는 언행 삼가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동북아의 안정을 더욱 혼드는 언행을 삼가고, 대신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집중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미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한데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변함.
-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환기하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이 이러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토록 하며, 인권유린 등에 가장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7. 28.

■ **北 “美 김정은 제재는 범죄행위, 선전포고로 간주”(연합뉴스)**

-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미국 국장은 28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한 국장은 평양 외무성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와의 전면 대결에서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섰다.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했다”고 비난함.

- 한 국장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미국이 북한에 선전포고한 것이라면서 “강경한 방식의 대응 행동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나오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함.

2016. 7. 29.

■ **미국무부 관리, 차기 행정부서도 첫해는 북한과 대화 어려울 것(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물론, 차기 행정부에서도 첫해는 북한과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힘.
- RFA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최 원장이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로부터 이런 입장을 들었다고 29일 보도함.
- 최 원장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도 첫 1년 동안은 (북한과 대화)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공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RFA에 전함.

나. 북·중 관계

2016. 7. 24.

■ **申왕이, 北 리용호와 회동 시사…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연합뉴스)**

- 북한의 리용호 신임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함.
- 리 외무상과 왕 부장은 이날 2시40분(현지시간)께 중국 쿤밍(昆明)에서 출발한 중국동방항공 공편을 같이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 귀빈 터미널에 나란히 도착함.
- 먼저 비행기에서 내린 왕 부장은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 모두에게 알려 주겠다”고 말함.

■ **‘친밀’ 연출했다…북중 외교수장, 같은 비행기에 같은 호텔 묵어(연합뉴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 과정에서 북중이 밀착된 모습을 보여 라오스에서 외교전을 염두에 둔 의도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옴.
-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같은 비행편인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타고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함. 북중 외교수장이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극히 이례적임.
- 북한은 중국과의 친밀 과시를 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공세적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임.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리의 주장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한중간, 한미와 중러 간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2016. 7. 25.

■ **북중 외교수장 라오스서 2년 만에 회담…쌍무관계 발전 토의(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2년 만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함.
- 리 외무상과 왕 부장은 이날 낮(이하 현지시간) 12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NCC)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양자회담을 함.
- 리 외무상은 앞서 이날 10시35분께 NCC에 등장해 귀빈실에 1시간 이상 머무르다 회담장으로 향했으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음. 리 외무상은 이날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과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짐.

■ **북중 외교장관 회담서 北 리용호 "중국과 소통 강화"(연합뉴스)**

-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소통 확대를 요청함. 다자외교 '데뷔전'에 나선 리 외무상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의 ARF 회의장인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첫 일정으로 왕 부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인민망이 보도함.
- 리 외무상은 "북중 우의는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맺고 키워온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과 접촉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북중 우호협력을 부단히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왕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 역시 항상 북중 우호협력의 발전을 중시하고 북한과 소통 강화, 공감대 확대, 이견의 적절한 처리, 협력 확대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함.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본 정책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다. 북·일 관계

2016. 7. 24.

■ **北노동자 고용 금지해야…日, 北 핵·미사일 자금차단 주력(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및 미국과 연대해 북한 노동자 수용 국가에 대해 이를 중단하도록 강하게 압박해 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노동자 파견을 차단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통신에 따르면 현재 5만~6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북 송금액은 연간 5억 달러(약 5천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앞서 미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5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월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7. 24.

■ 또 호지부지되는 안보리 대북 성명…한반도 사드 영향?(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번 달에 발생한 두 건의 도발에 대해서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음.
-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발표한 뒤에 이뤄진 도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어서 안보리 내에 사드를 둘러싼 불편한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한 외교관은 “안보리가 볼 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언론성명을 내야 하는 시안은 아니다”면서 “이미 언론성명 등을 낼 적기를 놓쳤고 추진 동력도 보이지 않지만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중국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함.

2016. 7. 25.

■ 동아시아정상회의 대북 규탄 성명 난항…中·라오스 반대(연합뉴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규탄 성명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중국과 미·일·호주가 대립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별도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과 호주 등이 이에 찬성하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EAS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음.
- 아세안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문제가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리용호, 아웅산 수처와 면담··유엔서 지지·방북 요청(연합뉴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처에게 유엔에서의 지지와 방북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 리 외상은 이날 수처 미얀마 외무장관과 만나 과거 북한과 미얀마와의 우호 관계를 언급하면서, 수처 주도의 문민정부에서도 이런 전통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요청함. 또 리 외무상은 수처 장관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요청도 했으나, 미얀마 측은 북한의 초청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함.
- 한편, 미얀마는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비확산조약을 흔들고 있으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난 성명을 내 주목을 받음.

■ 유엔사, 24일 새벽 확장기로 北에 '인공어초' 설치 통보(연합뉴스)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4일 새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북측에 서해 '인공어초' 설치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 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유엔사가 어제 새벽에 JSA에서 북한 측에 서해에서의 인공어초 설치 계획을 확성기로 통보했다"면서 "전화 채널 등이 단절됐기 때문에 북측에 잘 들릴 수 있는 시간을 택하다 보니 새벽 시간을 선택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굳이 일요일 새벽에 통보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게 북측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페인, 북핵공조 협력 재확인(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방한 중인 이그나시오 이바녜스 루비오 스페인 외교차관과 제11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간 협력증진 방안과 북핵 등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임 차관은 스페인이 2015~2016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 및 비확산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 및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함.
- 이에 대해 이바네스 차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핵 비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 협력을 재확인함.

2016. 7. 26.

■ **北 리용호, 라오스에 ARF 계기 양자방문 요청했다 거절당해(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계기에 개최국 라오스에 양자방문을 요청했으나 라오스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26일 “리 외무상이 ARF 이후 라오스에 양자방문을 요청했지만 라오스가 스케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지난해 말레이시아 ARF 이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브루나이와 태국을 찾은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북한의 연초 핵실험 이후 강해진 대북 경계감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임.

2016. 7. 27.

■ **ARF 의장성명 발표·北핵실험·로켓발사 우려(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27일 발표됨.
-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8항)을 담고 있음.
- 성명은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확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했다”고 밝힘.

2016. 7. 28.

■ **우크라이나, 북한과 맺은 민간교류협정 폐기(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 교류협정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과의 민간분야 교류 협정 폐기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면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은 5번째 교역 상대였음.

■ 英, 고려항공 이용 시 주의·北 여행주의보 갱신(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최근 고려항공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북한 여행주의보 내용을 갱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영국 외무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발령한 여행주의보에 ‘고려항공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함.
- 영국은 작년 4월과 8월, 11월 등 북한의 도발과 외국인 억류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음.

2016. 7. 29.

■ 북한 방문 초청받은 이웅산 수치가 묵묵부답하는 까닭(연합뉴스)

-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은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 이웅산 수치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얀마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인 수치는 지난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부터 방북 요청을 받았다. 미얀마 외무부도 당시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방북 초청 사실을 확인함.
- 그러나 미얀마 당국은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아직 하지 않음. 외무부 관리는 미얀마 타임스에 “아직 북한 방문 요청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면서 취임 초기 여러 국가에서 제안한 방문 요청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함.

■ 北, ARF 의장성명에 불만표시…수정 시도했으나 실패(연합뉴스)

- 북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29일 전해짐.
- 북측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RF 외교장관 회의 종료 이틀 뒤인 28일 라오스 측과 만나 성명 수정을 요구했으나 라오스 측은 다른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상황이고, 이미 발표된 문안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7. 23.

■ 北, 공기부양정·잠수함 훈련 활발...군용유 어디서 났나?(연합뉴스)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군용유 조달이 여의치 않은 데도 최근 전투기와 공기부양정, 잠수함 등의 훈련 횟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북한 전투기와 공기부양정, 잠수함 등의 훈련이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면서 “훈련 횟수가 적었던 지난해보다 1.5~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함.
-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경북 성주지역 배치 결정에 따른 무력시위로 스커드(사거리 300~700km)와 노동(사정 1천300km)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北, 3천급 SLBM 잠수함 기지 건설 중...은폐용 덮개도 갖춰(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을 정박시킬 수 있는 해군 기지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영국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22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동해 신포항에서 남쪽으로 2.25km 떨어진 곳에 SLBM 탑재 잠수함 기지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함.
-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공사 동향을 오래전부터 포착하고 주시해왔다”면서 “보통 잠수함의 대피시설은 지하에 건설하기 때문에 북한이 건설 중인 이 시설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2016. 7. 26.

■ 北, 영공 요새화 위한 ‘북한식 미사일방어체계’ 구축한 듯(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북한 정세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영공 요새화를 위해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진무·조남훈·정상돈·이호령·전경주 박사는 26일 공동으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은 반항공(대공)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본격화하는 등 ‘북한식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 이들은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4차 핵실험과 광명성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대등성에 기초한 대미협상 구도’를 조성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 내 사정거리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7. 27.

■ **(단독)김정은, 5년간 탄도미사일 31발 발사…1천100억 원 이상 날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천100억 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린 것으로 분석됨.
-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스커드(사거리 300~1천km) 16발, 노동(1천300km) 6발, 무수단(3천500~4천km)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1발을 발사함. 이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18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 16발의 2배에 해당함.
- 김정은이 이처럼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핵 탑재 미사일의 투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함.

2016. 7. 28.

■ **北, 평양 인근에 새 군사훈련시설 조성(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시 인근에 새 대형 군사훈련시설을 조성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분석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평양 중심부 남쪽에 장애물 훈련장·차량 운전 연습장·사격장 등을 갖춘 훈련시설이 생겼다고 전함.
- 멜빈 연구원은 “북한은 도시 여러 곳에 건축물과 훈련장소를 갖춘 군사훈련시설을 짓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RFA에 말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26		오바마, 한국 안정·안보위한 미국 헌신 결코 안 흔들려(연합뉴스)
		한미 방산기술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KF-X 기술이전 논의(연합뉴스)	
	7.28		6·25전쟁 미군 출항지 샌프란시스코에 참전기념비 선다(연합뉴스)
		뉴욕서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확고한 한미동맹 재확인(연합뉴스)	
		한미, 北현금유입 2~3개월간 집중차단...5차 핵실험엔 강력제재(연합뉴스)	
7.29	한미 국방차관 워싱턴서 회담...美 한국 철통방어 재확약(연합뉴스)		
		美 백악관 동맹 한국에 대한 철통 방어는 초당적 약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24	한중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대응 공조 강화(연합뉴스)	
		한중, 사드배치 결정후 첫 외교장관회담...한중관계 기금자(연합뉴스)	

	7.25	中왕이 “韓, 신뢰에 해 끼쳐”...윤병세 “특정사안, 관계영향 안 돼”(연합뉴스)	
	7.26		중국, 한미일 외교 수장 연쇄 접촉...사드·남중국해 갈등 표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7.23	아사히 “한·일, 라오스서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율”(연합뉴스)	
한일 관계	7.25	한일 외교장관 라오스서 회동...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연합뉴스)	
			日, 위안부 재단 100억 원 출연 구체적 시기는 미정(연합뉴스)
	7.27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달 하순 서울서 개최(연합뉴스)	
		한일 ‘위안부재단’ 국장급 협의...日, 정관수정 요구 대두(연합뉴스)	
	7.28		日, 재단출연금-소녀상 연계론 일단 봉인...추후 ‘압박’ 전망(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7.26	교도통신 “朴대통령, 9월초 러시아 방문 가능성”(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23	라이스 24일 방중...美中, 남중국해·사드·북핵 협의 주목(연합뉴스)	
			中 남중국해 배치 지대공미사일 철수... 미중 긴장완화 노력(연합뉴스)
	7.24		中, 미일 겨냥 “이간질 말라”...ARF서 ‘남중국해 격전’ 예고(연합뉴스)
	7.25	남중국해 법에 따라 해결해야...미일호주 외교장관 중국 협공(연합뉴스)	
	7.21	미국가안보보좌관 “美中, 가장 강력하고 통일된 대북전선 구축”(연합뉴스)	
		미 해참총장 “중국, 미 해군 함정 기항 다시 허용할 듯”(연합뉴스)	
미국가안보보좌관 “사드, 중국에 위협 되지 않는다”(연합뉴스)			
			中왕이, ‘남중국해 외교성과’... 美日濠 협공도 정면 반박(연합뉴스)
			<美민주 전대> ‘보호무역·인권 옹호’ 힐러리 후보 확정에 中 긴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24	美재무, 의도적 통화가치 인하 피해야... 日아소에 견제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26	러시아의 美대선 개입 의혹 증폭...新냉전 갈등 일촉즉발(연합뉴스)	
	7.27	오바마, 러시아의 美대선 개입 의혹에 "뒤통스 가능하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25		일본, 남중국해 마찰 외중에 최신에 수직이착륙기 추가 도입(연합뉴스)
		중일 외교장관도 라오스서 회담...남중국해 문제 논의할 듯(연합뉴스)	
	7.26	日中, 남중국해 설전...중재결정 존중하라 vs 말조심하라(연합뉴스)	
		중, 립팩 훈련에서 일본에 노골적 '반일 감정' 표시(연합뉴스)	
	7.28	中, 일본남성 구속 日 통보...작년도 스파이 혐의4명 구속(연합뉴스)	
	7.29	중국서 구속된 日 남성, 일중청년교류협회 이사장(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26	중러, 사드 반대 공동성명 유엔 제출(연합뉴스)	
		신냉전시대 점화하나...중러 9월 남중국해서 합동 훈련(연합뉴스)	
	7.29	중러 '밀착 행보' 가속...사드 배치도 반대 한목소리(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7. 26.

■ 오바마, 한국 안정·안보위한 미국 헌신 결코 안 흔들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에 대해 “우리의 지속되는 우정과 깨지지 않는 동맹은 공통으로 지닌 믿음과 소중이 여기는 가치들에 의해 지탱될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 63주년(27일)을 앞두고 낸 성명을 통해 “한국인은 그들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또 “그들이 결코 몰랐던 나라와 결코 만난 적이 없던 이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사랑했던 이들을 남기고 한국전쟁으로 떠난 애국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함.

■ 한미 방산기술협약체 첫 고위급 회의…KF-X 기술이전 논의(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26일(미국 현지시간) ‘방산기술전략협약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제1차 DTSCG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고 26일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동맹의 연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정책을 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2016. 7. 28.

■ 6·25전쟁 미군 출항지 샌프란시스코에 참전기념비 선다(연합뉴스)

-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출항했던 미국 서부 항구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참전 기념비가 세워질 예정임.
- 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국립공원에서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린다”고 28일 밝힘.
- 보훈처와 미 한국전쟁기념재단(KWMF)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안호영 주미대사,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완근 보훈처 차장,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 대사, 마이크

혼다 미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훈처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출항한 장소인 샌프란시스코에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일깨울 것”이라고 기대함.

■ 뉴욕서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확고한 한미동맹 재확인(연합뉴스)

- 한국전쟁 정전 63주년을 맞아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전 기념식이 열림.
- 맨해튼 남부 배터리파크에서 정오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한미 양국의 국가 연주를 시작으로 40여 분 동안 계속됨.
- 행사에는 뉴욕 주 포병대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협회(KWVA) 뉴욕지부의 살바토레 스카를라토 회장,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 글로벌 한미재단의 헨리 강 회장, 뉴저지 주 세인트폴 수도원 새뮤얼 김신부 등이 참석함.
-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소사이어티의 번 회장은 “정전으로 적대 행위는 멈췄을지 모르지만, 최종 평화정착이 달성된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면서 “그런 만큼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은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말함.

■ 한미, 北현금유입 2~3개월간 집중차단·5차 핵실험엔 강력제재(연합뉴스)

-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만들어내야겠다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함.
-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제3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직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힘.
- 조 차장은 현금유입 차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어렵다”면서 “다만 국제적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틀이 상당히 잡혀 있는 만큼 이 틀을 기초로 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2~3개월간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한미 국방차관 워싱턴서 회담·美 한국 철통빙어 재확약(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로버트 위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펜타곤이 밝힘.
- 펜타곤은 27일 보도 자료에서 “두 사람은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며 “워크 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어를 재확인했다”고 말함.

- 황 차관은 양국 간 ‘방산기술전략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를 위해 방한했으며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의 기술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함.

2016. 7. 29.

■ **美 백악관, 동맹 한국에 대한 철통 방어는 초당적 약속(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를 약속해왔으며 그것은 당을 초월한 약속”이라고 말함.
-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 한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함.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지 W.부시 대통령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약속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그랬다”고 밝힘.
- 또 “그러한 동맹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방어에 대한 약속을 지켜온 오래된 전통이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자 우리나라의 안보에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6. 7. 24.

■ **한중 재무장관, 보호무역주의 대응 공조 강화(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재무장관이 2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남. 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 강화 등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20분 간 양자 면담을 했다고 밝힘.
- 러우 재정부장은 중국이 올해 G20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함.

■ **한중, 사드배치 결정후 첫 외교장관회담…한중관계 기능자(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늦은 오후(현지시간) 아세안

(ASEAN) 관련 연쇄회의가 본격 시작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됨. 지난 8일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외교수장 간 첫 회담임.

- 이에 따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 문제를 비롯해 북핵 등 특정 현안과 함께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임.
- 북한이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19일 총 3발의 노동 및 스커드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는 과거에 언론성명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지연되고 있음.

2016. 7. 25.

■ **中왕이 “韓, 신뢰에 해 끼쳐”…윤병세 “특정사안, 관계영향 안 돼”(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양국)의 호상(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왕 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24일(현지시간) 밤 라오스 비엔티안의 호텔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이 말함.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함. 윤 장관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 등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고,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왜 해치지 않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당당하게 설명했다”고 말함.

2016. 7. 26.

■ **중국, 한미일 외교 수장 연쇄 접촉…사드·남중국해 갈등 표출(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25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과 연쇄 회동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표출함.
- 이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지만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한국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압박했고 남중국해 문제는 일본과 설전을 벌이하면서도 미국에는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핵실험으로 제재를 받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기는 했으나 한미일 동맹을 의식해 북한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의 양면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2016. 7. 23.

■ 아사히 “한·일, 라오스서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4~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현지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음.
- 일본은 기시다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간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함

2016. 7. 25.

■ 한일 외교장관 라오스서 회동…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연합뉴스)

- 한일 외교장관은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담을 하고 지난해 말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지는 않는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연대해 대응해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임.
-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난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임

■ 日, 위안부 재단 100억 원 출연 구체적 시기는 미정(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출범하는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107억 원)을 출연할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제공 시기를 질문받자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라며 “일한 모두 합의를 성실히 실행에 옮겨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양자 및 지역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일한관계를 더욱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함.

2016. 7. 27.

■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달 하순 서울서 개최(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하순 서울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27일 전함.
-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해 5월에 이어 2년 연속 열리는 것임.
- 이번 재무장관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하게 됨.

■ **한일 '위안부재단' 국장급 협의...日, 정관수정 요구 대두(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열고 28일 출범하는 위안부 재단에 대한 일본 측의 10억 엔(약 107억 원) 출연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이 전함.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10억 엔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임.
- 이는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자금을 제공할 경우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외무성 관계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측이 소녀상 이전 대상 장소를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덧붙임.

2016. 7. 28.

■ **日, 재단출연금-소녀상 연계론 일단 봉인...추후 '입박' 전망(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8일 군위안부 지원 재단이 공식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재단 출연금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군위안부 소녀상 이전의 '연계론'을 봉인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재단이 공식 출범한데 대해 “(한일이) 각자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며 “계속 한국과 협력해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소녀상 이전에 대해 기시다는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한 합의로 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 전부”라고 말함.
- 결국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중에 10억 엔(약 107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낼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보도함.

라. 한·러 관계

2016. 7. 26.

■ 교도통신 “박대통령, 9월초 러시아 방문 가능성”(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함.
- 교도는 9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이하 포럼) 주최 측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포럼에 참석할 전망이라고 소개함.
- 이 자리에서 포럼 주최 측 관계자는 “한일은 정상의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7. 23.

■ 리이스 24일 방중...美·中, 남중국해·사드·북핵 협의 주목(연합뉴스)

- 수전 리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함.
- 백악관은 리이스 보좌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양자와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에 앞서는 성격을 갖는다고 백악관은 덧붙임.
- 워싱턴DC 외교소식통들은 리이스 보좌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이 양자는 물론 지역 문제도 논의할 예정인 만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中 남중국해 배치 지대공미사일 철수...미중 긴장완화 노력(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배치했던 지대공 미사일을 남중국해 중재결정 이틀 전에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남.
- 23일 중화권 언론은 영국 군사전문 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를 인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지난 10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사시<西沙>군도)의 우디 섬(용상다오<永興島>)에 배치한 '홍치(紅旗-HQ)-9' 미사일을 철수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홍치-9 미사일의 철수가 지난 5일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를 남중국해 해역에서 철수하기로 한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고 추측함. 그러면서 이를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대치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함.

2016. 7. 24.

■ **中, 미일 겨냥 “이간질 말라”…ARF서 ‘남중국해 격전’ 예고(연합뉴스)**

- 2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하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례 외교장관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임.
- 남중국해 중재판결이 나온 지 보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분쟁의 핵심 당사국들이 모두 포진한 곳에서 열리는데다, 중국의 영유권 강화 행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일본도 참석하기 때문임.
- 올해 ASEM 회의에서도 일본 등이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원론적 문구만 삽입하는데 그침.

2016. 7. 25.

■ **남중국해 법에 따라 해결해야…미일호주 외교장관 중국 협공(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호주가 25일 남중국해 문제를 소재로 중국에 대한 협공에 나섬. 이들 3개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남중국해 문제는 법의 지배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국 측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것임.
-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엔 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수용을 거부하며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은 물론 미일 등과도 긴장을 연출하고 있음.

■ **방중 리이스에 강은 대응…中, 양국관계 심각한 도전(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중국을 방문 중인 수전 리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남중국해 갈등에도 미국과 우호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함.
- 하지만 중국군의 최고 수장인 관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남중국해 갈등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A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리이스 보좌관을 만나 “중국은 불(不)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공영(윈윈)의 원칙에 기반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강력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리이스 보좌관은 그러면서도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함. 하지만 전날부터 시작된 리이스 보좌관의 4일간의 방중 일정에서 남중국해 현안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함.

2016. 7. 27.

■ **미국기안보보좌관 “美·中, 가장 강력하고 통일된 대북전선 구축”(연합뉴스)**

- 수전 리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공세에 직면해 미국과 중국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고자 양국 간에 남은 전술적 차이점(tactical differences)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중국을 방문 중인 리이스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미디어룸 계정에 올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미중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중국 모두 한반도 비핵화(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오는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자 지난 24일 방중한 리이스 보좌관은 베이징에서 카운터파트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뿐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중국군의 최고 수장인 판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도 만남.

■ **미 해참총장 “중국, 미 해군 함정 기항 다시 허용할 듯”(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놓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이 미국 함정의 중국 기항을 다시 허용할 것 같다고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이 26일(현지시간) 내다봄.
- 최근 중국을 방문해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 사령관 등과 만난 리처드슨 총장은 이날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의 회견에서 방중 결과를 언급하면서 “기항의 중요성 등을 포함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미 해군 함정의) 중국 기항이 다시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함.
- 한편 우성리 사령관은 지난 18일 리처드슨 참모총장과의 면담에서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우리당(중국공산)의 집권기초, 국가의 안전과 안정, 중화 민족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남해(남중국해)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미국기안보보좌관 “사드, 중국에 위협되지 않는다”(연합뉴스)**

- 수전 리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리이스 보좌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컨퍼런스콜에서 “이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라면서 “북한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겨냥하지 않으며 이 방어 무기 체계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함.

- 중국군의 최고 수장인 판창룡 부주석은 지난 25일 라이스 보좌관과 회동에서 남중국해 갈등과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중왕이, '남중국해' 외교성과... 美日濠 협공도 정면 반박(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4일부터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의 무대에서 쟁점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음.
- 왕 부장은 우선 아세안(ASEAN) 외무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 중국 측이 패소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존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외교에 주력함.
- 왕 부장은 아세안 관련 회의를 마친 뒤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아세안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이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어느 한쪽에 서지 않기로 한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

■ **〈美민주 전대〉 ‘보호무역·인권 옹호’ 힐러리 후보 확정에 中 긴장(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대미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음.
-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 주의로 돌아선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전면적인 무역협정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또한, 클린턴 전 장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중국을 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음.
- 차이나테일리는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선 후보가 됐다면서 그의 인생 역정을 조명했으며, 신랑망도 클린턴 전 장관이 여성의 정치 참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전함.

나. 미·일 관계

2016. 7. 24.

■ **美재무, 의도적 통화가치 인하 피해야...日아소에 견제구(연합뉴스)**

-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당시 급속한 엔고가 나타나자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미국 측이 재차 견제에 나선.
-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NHK 등이 전함.

- 아소 부총리는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토론을 통해 “세계 경제에 후퇴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힘. 그는 또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동향 및 향후 영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다. 미·러 관계

2016. 7. 26.

■ 러시아의 美대선 개입 의혹 증폭·新냉전 갈등 일촉즉발(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코앞에 앞두고 터진 위키리크스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폭로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첫 번째 시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움직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의혹의 파장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폭로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지난 22일 DNC 지도부 인사 7명의 이메일 1만9천252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함. 이들 이메일에는 지도부가 클린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을 편파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음.

2016. 7. 27.

■ 오바마, 러시아의 美대선 개입 의혹에 “뭐든 가능하다”(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을 해킹하고 유출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답함.
-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수사국(FBI)이 DNC 해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들이 이번 해킹에 러시아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함.
- 진행자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이어 가자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이든 가능하다”(Anything's possible)고 짧게 답함.

라. 중·일 관계

2016. 7. 25.

■ 일본, 남중국해 마찰 외중에 최신에 수직이착륙기 추가 도입(연합뉴스)

- 일본이 최신에 MV-22B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함.
- 영국 군사전문 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는 미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일본이 지난해 5대의 MV-22B 오스프리를 주문한 데 이어 최근 다시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함. 일본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한 4대의 구매액은 3억200만 달러(3천430억 원) 규모임.
- 도입될 MV-22B기는 일본이 곧 발족할 예정인 수륙기동단에 배치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원거리 도서가 점령당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JDW는 평가함.

■ 중일 외교장관도 라오스서 회담…남중국해 문제 논의할 듯(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담을 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4월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이후 3개월 만임.

2016. 7. 26.

■ 日中, 남중국해 실전…중재결정 존중하라 vs 말조심하라(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담했지만,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림.
- 교도통신에 의하면, 1시간 이상 이어진 이 날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배격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준수할 것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 기시다 외무상은 PCA 결정에 대해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지를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지적한 뒤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고 교도는 전함.
-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발함. 중국의 뉴스통신사 ‘중국신문사’에 의하면 왕 부장은 “일본은 언동을 삼갈 것을 충고한다”며,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라. 끝이 없다”고 말함.

■ 중, 립팍 훈련에서 일본에 노골적 '반일 감정' 표시(연합뉴스)

-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중국이 미국 주도의 해상군사훈련인 '2016년 환태평양훈련(RIMPAC, 립팍)'에서 일본 자위대원의 함정견학을 막는 등 반일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올해 립팍훈련에 참가하는 중국해군 대표단은 일부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의 중국함정 견학을 막았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중국은 지난해 립팍훈련에 별도의 정보수집함을 훈련 해역과 가까운 공해상으로 파견해 논란을 빚기도 했음.

2016. 7. 28.

■ 中, 일본남성 구속 日 통보... 작년도 스파이 혐의4명 구속(연합뉴스)

- 중일교류단체 관계의 일을 하는 일본인 남성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자 일본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섬
- 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브라핑에서 "우리나라 남성 1명이 이달 베이징(北京) 시내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스파이 행위에 관여했다면서 일본인 남녀 4명을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구속한 바 있음. 이들 가운데 한 명도 중일교류단체 업무를 하고 있었음.

2016. 7. 29.

■ 중국서 구속된 日 남성, 일중청년교류협회 이사장(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통보된 일본인 남성은 '일중(日中)청년교류협회 스키 에이지(鈴木英司59) 이사장으로 밝혀졌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함.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스키 이사장이 중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전함. 일본 정부는 전날 이 소식을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힘.
- 환구시보는 "스키 씨가 현재 간첩혐의로 중국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국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함.

마. 중·러 관계

2016. 7. 26.

■ 중·러, 사드 반대 공동성명 유엔 제출(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지난 8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유엔주재 우하이티오 중국 부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가 공동명의로 유엔에 제출한 서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명한 공동성명이 첨부됨.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과 사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이는 중력을 포함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힘.

2016. 7. 29.

■ 냉전시대 접화하나·중·러 9월 남중국해서 합동 훈련(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9월 영유권 분쟁이 뜨거운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하기로 함.
- 이는 미국, 일본 등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중국이 거부한 것을 비난한 가운데 나와 새로운 냉전 시대가 접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과거 냉전 시대에 공산 진영의 빅2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함께 훈련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러 ‘밀착 행보’ 가속·사드 배치도 반대 한목소리(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연합 전선을 펴며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음.
- 29일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모스크바에서 제4차 동북아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함.
- 중국 국방부는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동맹 전선을 펴는 미국, 일본 등을 겨냥해 오는 9월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7.26	영국 외무부, 상반기 북한인권 상황 전혀 개선 없어(미국의소리) 日언론 '납치용의자' 신광수, 김정은 정권서도 견제(연합뉴스)
	7.28	[단독]몰타 정부, 북한 노동자 사실상 추방...EU 국가 중 최초(연합뉴스) 단독몰타의 북한 노동자, 사실상 고립된 생활 했었다(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7.27	북, 탈북가족 경제활동 면밀 감시(자유아시아방송)
	7.29	北,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책임자 6명 공개처형(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7.25	정부, 북한인권재단 9월 초 설립...연간 250억 원 출연(연합뉴스)
	7.28	북한인권법 시행돼도 제3국 거주 탈북민은 지원 못 받는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7.27	탈북자,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진입...군 배경 인사(연합뉴스)
	7.28	주홍콩 韓총영사관 진입 탈북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학생(연합뉴스) [단독]몰타에서 북한 근로자 3명 탈출...한국 입국설(연합뉴스)
	7.29	요미우리, 中랴오닝성 공장서 지난달 北여직원 8명 탈출(연합뉴스)
대북지원	7.25	대북제재 강화에 북한 내 구호활동 빨간불(연합뉴스)
	7.26	국제구호단체, 북한서 새 재난대비 사업...독일 정부 84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7.28	FAO, 北 식량위협지수 191개국 중 52번째로 높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7. 26.

■ 영국 외무부, 상반기 북한인권 상황 전혀 개선 없어(미국의소리)

-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권 우선대상국 상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상반기에도 계속 국제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지난 2월 부과한 ‘70일 전투’로 건설현장 등에서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정기적으로 정치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함. 이어 북한 당국은 ‘200일 전투’를 발표해 주민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그 같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임.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힘.
- 아울러 북한이 상반기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힘. 그러면서,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함.
-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대상국 (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함. 영국 외무부는 올해도 인권 문제는 대북정책의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며,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힘.

■日文론 ‘납치용의자’ 신광수, 김정은 정권서도 건재(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사건 용의자로 국제수배 중인 전 북한 공작원 신광수(87) 씨가 김정은 정권에서도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함.
-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일본의 해외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를 인용해 신 씨로 보이는 인물이 조선중앙TV가 23일에 방송한 공식 행사 뉴스 영상에 등장했다고 소개함. 영상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통일운동단체 결성 7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를 찍은 것임.
- 일본 경찰은 신 씨가 지무라 야스시 씨 부부와 하라 다다이키 씨를 납치한 것으로 보고 북한에 신 씨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음.

2016. 7. 28.

■ **(단독) 몰타 정부, 북한 노동자 사실상 추방...EU 국가 중 최초(연합뉴스)**

- 몰타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자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를 사실상 추방 조치함
- 28일 몰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몰타 정부는 체류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에게 체류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음.
- 몰타 정부는 최근 들어 몰타의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우리 정부와 유럽의 북한 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됨.
- 외교 소식통은 “몰타가 비록 인구 40만 명 남짓으로 EU 회원국 중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EU 국가 중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 제재리는 조치를 취한 데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며 몰타를 신포탄으로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단독) 몰타의 북한 노동자, 사실상 고립된 생활 했었다(연합뉴스)**

- “북한 노동자들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농담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 28일 몰타섬 중부 모스타 지역에 위치한 건설회사 ‘라이트 믹스’. 불과 2개월 전까지 북한 노동자 15명가량이 일하던 터전이었으나 이날 북한 노동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음. 몰타 정부가 체류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에게 체류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한 데 따른 것임.
- 북한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야근을 해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 몰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 근로자들도 몰타 노동자들과 똑같이 200유로의 주급을 받아갔다”며 “노동자들이 이 돈의 일부만 손에 쥘 채 나머지는 감독자에게 상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곳에서 일하는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절제할 줄 알고, 규율이 있어서 북한 동료들을 좋아했다”며 “아마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고용하고 싶어 하는 이곳 업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7. 27.

■ **북, 탈북가족 경제활동 면밀 감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당과 보위부, 보안성 등 감시기관들이 탈북자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회령시와 연락하고 있는 한 탈북자는 “현재 북한에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탈북자 가족들은 전면 배제되고 있다”면서 “감시 감독기관이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북한 감시당국은 이미 탈북자들의 명단을 종합하고 탈북 가족들이 신흥 경제자립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고 함.
- 남포시가 고향인 한 30대의 탈북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수시로 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경제적 자립심이 부족하다고 오해했다”면서 “하지만, 보위부가 뒤에서 가족을 몰래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탓하지 않는다”고 말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후 민심을 얻기 위해 ‘비록 탈북자 가족이라도 안정되게 생활하도록 당에서 돌봐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짐.

2016. 7. 29.

■ **北,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책임자 6명 공개처형(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파견 종업원 13명이 집단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주장이 나옴.
- 최성룡 납북자기족모임 대표는 중국과 평양을 오가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9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밝힘.
- 최 대표는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5월 5일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에서 안전교사(보위부 요원) 등 관련 책임자 6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말함.
- 최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외무성, 인민보안성 간부 80여 명과 해외파견 근무자들의 가족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이 진행됐다고 한다”고 전함.
- 또 북한은 귀순한 종업원들의 가족을 묘향산 교육시설에 집단 구금한 뒤 강습교육(사상교육)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최 대표는 덧붙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7. 25.

■ **정부, 북한인권재단 9월 초 설립...연간 250억 원 출연(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짐.

-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의 수사 인력도 파견될 예정임. 한편,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 받게 됨.

2016. 7. 28.

■ **북한인권법 시행에도 제3국 거주 탈북민은 지원 못 받는다(연합뉴스)**

- 오는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더라도 북한에서 탈출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3조에 (지원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밝힘.
-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을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탈북민은 북한인권법의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임.
- 이 당국자는 제3국 소재 탈북민을 보호, 지원하는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인권재단이 도와줘야 한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대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할 수는 없다.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6. 7. 27.

■ **탈북자,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진입·군 배경 인사(연합뉴스)**

- 북한을 탈출한 한 인사가 최근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들어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함.

- 동방일보(東方日報) 인터넷판인 동망(東網)은 최소한 한 명의 탈북자가 1~2주일 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일시적으로 영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동망은 탈북자의 성별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홍콩 진입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빈과일보는 북한 군 배경의 인사가 도주해 홍콩으로 온 뒤 한국총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고 전함.

2016. 7. 28.

■ **주홍콩 주총영사관 진입 탈북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학생(연합뉴스)**

- 최근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는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 학생이라고 명보(明報)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이 학생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제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다가 1주일 전 대표팀을 이탈해 한국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명보가 전함.
- 이에 대해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측은 탈북자와 관련한 문의에는 답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영사관 내 탈북자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함.

■ **(단독) 몰타에서 북한 근로자 3명 탈출·한국 입국설(연합뉴스)**

- 지중해의 섬나라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에서도 근로자 탈출이 잇따르고 있음. 이들은 탈출 후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짐.
- 28일 몰타 현지 주민들과 정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작년 여름께 현지 북한 식당 종업원 2명이 감시망을 뚫고 종적을 감춘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몰타에 와있던 북한 건설 노동자 1명이 사라짐.
- 작년에 사라진 북한 식당 종업원은 중년 남성 1명, 20대 초반의 여성 1명으로 몰타의 북한 식당 '더 가든'(정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몰타를 탈출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몰타를 담당하는 한국 공관 측은 몰타 식당 종업원 등의 한국 입국설에 대해 "이는 바가 없다"고 답변함.

2016. 7. 29.

■ **요미우리, 중앙오닝성 공장서 지난달 北여직원 8명 탈출(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遼寧)성 동강(東港)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직원 8명이 지난달 집단

- 탈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동강 시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지난달 말 북한 여성 8명이 감시를 뚫고 달아남. 탈북 브로커가 안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함.
 - 이들의 탈출 이후 북한 당국은 동료 직원 등 약 100명을 본국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신문은 전함.

5. 대북지원

2016. 7. 25.

■ 대북제재 강화에 북한 내 구호활동 빨간불(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 기관이 북한 송금을 거부해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고, 중국 세관에서는 북한으로의 구호물자 수송이 지연 또는 차단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평양의 한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의약품, 위생 장비 등 상품 수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북한에 물건이 일부 남아있지만 당분간 북한 내부로 긴급 구호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은행이나 운송업자 등 민간 업체들이 북한 내 구호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본부는 북한 내 구호단체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파악하크 유엔 대변인은 전함.
-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2천490만 명 중 70%가량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약 105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임.

2016. 7. 26.

■ 국제구호단체, 북한서 새 재난대비 사업...독일 정부 84만 달러 지원(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북한에서 새로운 재난 대비 사업을 시작함.
- 이 단체의 클라우드야 썬 대변인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달부터 황해북도과 강원도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오는 2018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76만 유로, 미화 84만 달러로, 독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함.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16만 유로, 미화 18만 달러를 이미 지급했다며, 내년엔 40만 유로에 이어 2018년에 2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이프 더 칠드런’은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함경남도 지역에서 재난 감소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이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주요 목표임. 독일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40만 유로, 미화 44만 달러를 지원함.

2016. 7. 28.

■ **FAO, 北 식량위험지수 191개국 중 52번째로 높아(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국가별 위험관리지수 조사에서 전체 191개국 가운데 북한을 52번째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기구는 최근 자연재해, 정부 행정력, 지역사회의 취약성 등 50개 지표를 종합한 ‘2016 위기지수보고서’를 공개, 북한을 4.4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중 하위 27% 수준인 52위로 평가했다고 VOA는 전함.
- 특히, 보고서는 ‘국제 기후위험지수’ 통계를 통해 북한이 재해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나라이며, 경제손실 면에서 전 세계 최악 10위권으로 분류된다고 적시했다고 VOA는 밝힘.